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0 | 11 | 제132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 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 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1) 복음말씀을 읽는다.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살기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소공동체 모임 순서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 · 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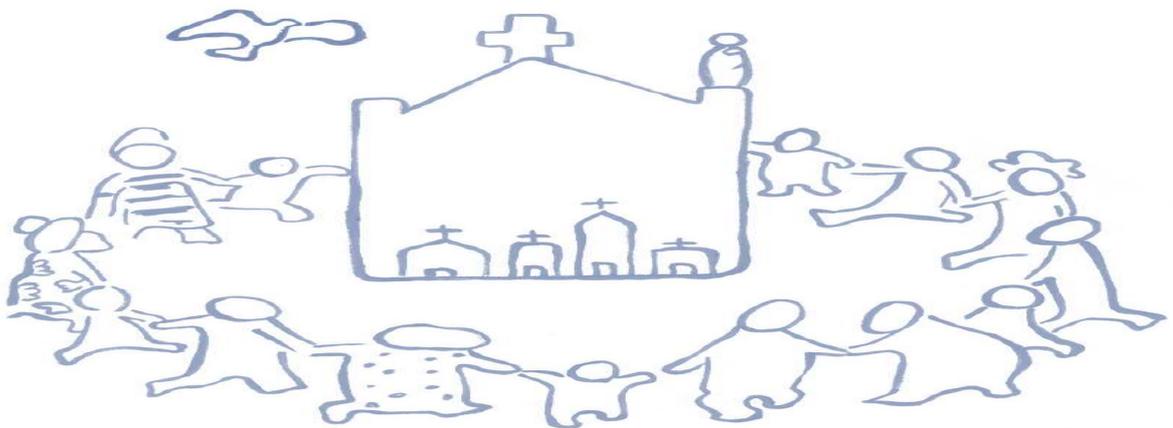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7.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복음 나누기

연중 제 32주일 (11월 8일)
그러니 깨어 있어라.
(마태 25,1-13)



열 처녀의 비유

1616년, 히에로니무스 프랑켄 2세, 캔버스에 유채, 에르미타주 미술관, 상트 페테르부르크, 러시아



복음 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5번 "사랑의 하느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언제나 저희가 깨어 있게 하소서.
- 주님!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1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2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들이었다. 3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4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5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6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7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8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9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10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11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12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다.' 하고 대답하였다. 13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신랑의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마태 25,5)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적은 없었습니까?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마태 25,13)

언제나 깨어 있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복음 나누기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깨어있음은 단순히 잠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깨어있음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몸은 깨어 있지만 마음은 잠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으로 하느님을 바라보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청하면서 살아갑니다. 몸은 신앙인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은 신앙과는 상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뜻에 깨어 있으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신앙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청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5번 "사랑의 하느님"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연중 제33주일(11월 15일)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마태 25,14-30)



충직한 종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상상할 수 없는 갖가지 보물들을 떠올려 봅시다. 이 보물을 주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활용한다면, 주님의 종인 우리는 행복합니다. 마침내 주인이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성실한 종은 주인과 함께 큰 즐거움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복음 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34번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가 당신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 주님! 저희에게 주신 은총을 성장시키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14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15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16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다. 17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두 탈렌트를 더 벌었다. 18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19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20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1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2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두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3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4 그런데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부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5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26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부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나? 27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28 저자에게서 그 한 탈렌트를 빼앗아 열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29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30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마태 25,14)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은총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떠올려 봅시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마태 25,23)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잘 사용하고 있나요?



복음 나누기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서 등장하는 탈렌트는 능력, 재능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이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러한 탈렌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에서처럼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각자 개인에게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탈렌트를 활용할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바라본다면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또는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탈렌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 생각한다면 나에게 주신 탈렌트를 사용할 때에도 두려움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어진 탈렌트를 당신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서 당신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 세상에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탈렌트를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라고 청하며 이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34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함께하는 소공동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 고현 본당 구역분과장 김혜영 크리스티나 -

저희 본당의 구역 반별 소공동체 모임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성당의 모든 활동이 구역별로 이루어집니다.

첫번째로 본당의 날 행사는 구역별 체육대회와 성지순례를 한해씩 번갈아 실시합니다. 구역별 체육대회에는 단체경기, 응원전, 개인전,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선의의 경쟁을 하며 본당의 날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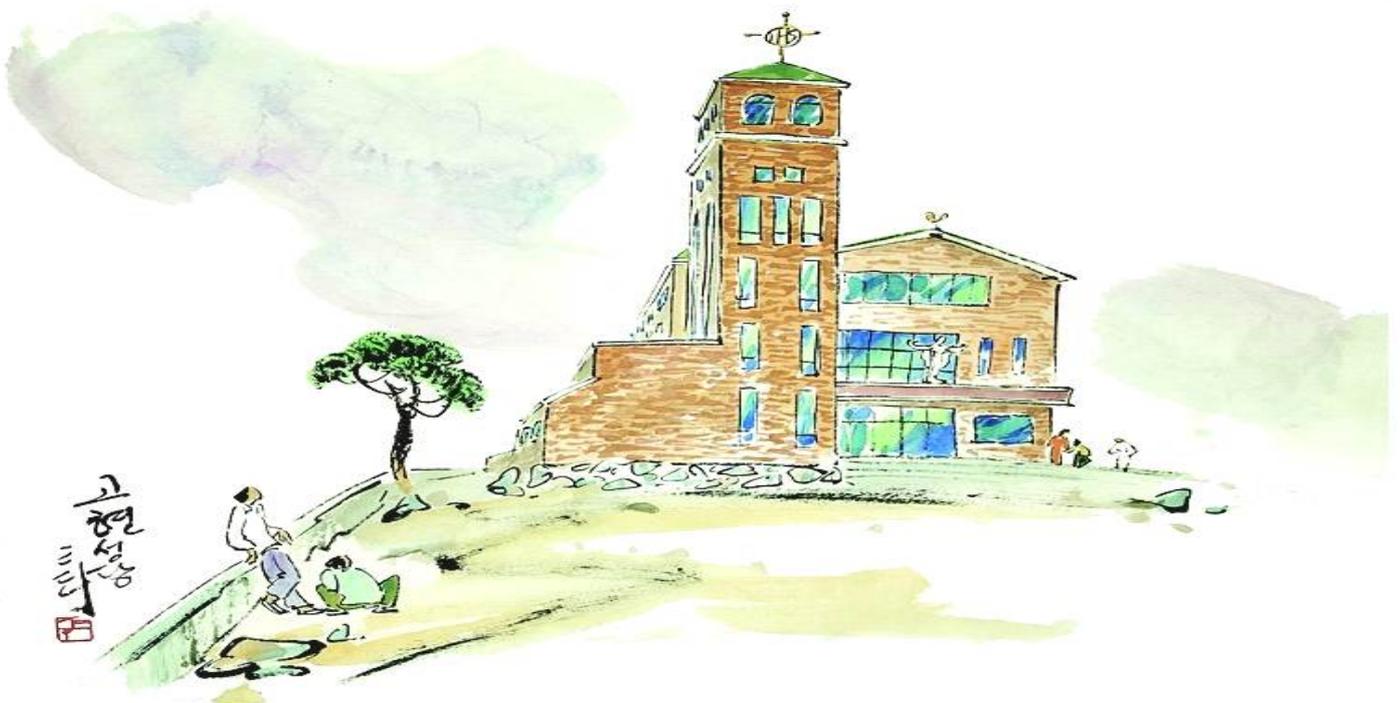
두번째, 구역별 성지순례는 우리나라의 성지 여러 곳을 선정하고 구역장님들이 제비뽑기를 하여 구역별 순례지를 정합니다. 구역장님 주도로 성지순례를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서로 한마음이 되어 끈끈한 정을 다지게 됩니다.

세번째, 한 달에 2번 주일 중식 나눔을 하는데 준비는 구역별로 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하다가 막상 차례가 되면 실력을 발휘하여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우리 본당 식구들은 고현성당 식사가 제일 맛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 맞이 구역별 성가대회도 있습니다. 첫 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행사가 해가 갈수록 많은 호응과 열정으로 각 구역의 개성을 살려 행사를 준비하고 행사 당일에는 다른 팀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멋진 모습을 뽐내며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축제의 장이 됩니다. 행사 이후에는 본당 로비에 구역별로 찍은 행사 사진을 전시하는데, 다양한 표정이 담겨있는 사진을 보며 자기 얼굴을 찾거나 다른 형제, 자매의 사진을 구경하며 즐거웠던 시간을 추억합니다.

힘든 일을 도맡아 수고가 많으신 반·구역장님을 위해 해마다 성지순례를 가는데, 지난해에는 2박 3일로 제주도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알차게 준비했던 구역별 성지순례, 중식 나눔, 성탄 성가대회 등의 행사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얼굴을 보며 소공동체 월례모임도 하고 구역별 활동도 활발해져 성당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하느님께 간절히 청해봅니다.





소공동체 선교 활동의 구체적인 방법

7. 장애요소

1) 개인적인 장애 요소

- 1) 선교할 용기가 없습니다.
- 2) 삶이 완벽해야만 선교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3)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 4)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 5) 말씀의 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 6) 기도의 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 7) 성령께서 함께 하시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 8) 공동체의 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 9) 신앙이나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여 선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10) 주님의 파견을 받은 사도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2) 외적인 장애요소

- 1)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신앙인들에 대한 냉소와 불신, 비아냥거림, 면박, 거부 등에 부딪힙니다.
- 2) 사람들의 냉소와 불신에 접하게 되면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막막하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 3) 한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 4) 노력하는 것에 비해 결실이 적고, 결실이 있더라도 더디다는 생각에 실망하고 맙니다.

『소공동체 교육 기초단계』(서울대교구사목국,통합사목연구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임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리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